

2016년 업무계획

#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일 · 가정 양립

2016. 1. 20.

 여성가족부

# 목 차

1. 기본방향 및 목적 .....	1
2. 그간의 성과 및 한계 .....	2
3. 주요 과제 .....	4
① 일·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.....	4
②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.....	7
③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.....	9
4. 추진 일정 .....	12

# 일·가정 양립 확산 (여성가족부)

## 1 기본 방향 및 목적

여성·남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

일·가정 양립 확산		
일·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	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	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</li> <li>• 가족친화경영 확산</li> <li>• 육아휴직 확산</li> <li>•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착근</li> <li>•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맞춤형 보육양육 서비스 제공</li> <li>• 안심보육 환경 조성</li> <li>• 학교·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·창업 서비스 강화</li> <li>• 조직 내 여성의 지속성장 지원</li> <li>• 여성의 일자리 진입 및 경력단절예방 토대 강화</li> </ul>

- 저출산 대응을 위해 여성인재 활용과 일·가정 양립 보편화 필요
  -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('17년), 고령사회 진입('18년)에 대비하기 위해,
    - 남녀 누구나 '일·가정 양립'하고 여성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필요
- 일·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인식·문화 개선 추진
  - 중소기업·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, 장시간 근로 등 일하는 방식 개선, 남성 육아참여 등 인식·문화 확산에 중점
- 여성의 고용 유지 및 일터 복귀 지원 강화
  - 청년여성 대상 특화교육, 창업지원 강화, 일자리 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추진

- 일·가정 양립제도 확대 및 인식개선을 통해 일·가정 양립 여건 조성
  - 출산·육아휴직,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일·가정 양립 제도 이용 확대
    - ※ 육아휴직자 수 : ('14년) 76,833명 → ('15년) 87,339명 (13.7%↑)
    - ※ 남성 육아휴직 : ('14년) 3,421명 → ('15년) 4,872명 (42.4%↑)
    - ※ 시간제 일자리 : ('14년) 5,622명 → ('15년) 11,620명 (106.7%↑)
  - 정시퇴근·유연근무 등 가족친화경영 실천 기업도 점차 확대
    - ※ 가족친화인증 기업·기관 : ('14년) 956개 → ('15년) 1,363개 (42.6%↑)
-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·돌봄기반 구축
  - 국공립·직장 어린이집 확충, 시간제보육·영아돌봄 등 근로자 친화형 양육 서비스 기반 구축
    - ※ 영아돌봄 서비스 이용 : ('14년) 4,027가구 → ('15.11월) 4,913가구 (22.0%↑)
    - ※ 국·공립·직장 어린이집 : ('14년) 3,181개소 → ('15.11월) 3,403개소 (7.0%↑)
- 여성의 재취업 지원, 일·가정 양립 확산 등으로 여성고용률 상승
  - 새일센터 확충 등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, 여성관리자 목표제 등 각 분야에 남녀가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
    - ※ 여성고용률 : ('13년) 53.9% → ('14년) 54.9% → ('15년) 55.7%
- 다만, 중소기업·비정규직 등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장시간 근로행태·사내눈치법 등 인식·문화 개선 필요

⇒ 일·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행복, 기업의 생산성 제고로 선순환하는 '국민행복 사회' 를 만들겠습니다.

## 현장의 목소리

- ◇ “육아를 위해 풀타임 직장을 그만두며 경력이 단절되었는데,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싶어요” (‘16.1월,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현장방문 간담회)
- ◇ “아버지 모임 등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층을 형성하고, 성별이 다른 자녀(여아) 육아에 대한 남성 육아 매뉴얼이나 교육이 필요해요.” (‘15.9월, 워킹대디 조사)
- ◇ “현실적으로 임신·출산기 근로시간단축(1일 2시간)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,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” (‘15.7월, 보건의료노조 간담회)
- ◇ “업체 간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한 결과, 직원들의 일·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” (‘15.7월, IT기업 파수닷컴 간담회)
- ◇ “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운 점이 많아요.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랍니다” (꽃보다 아빠 사례집, ‘15)
- ◇ “직장인 아빠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.” (꽃보다 아빠 사례집, ‘15)
- ◇ 저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너무 좋거든요, 애기낳고 키우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 제도인데,,, 아예 법적으로 출산한 여성은 1년동안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키게끔 하는 거죠” (산업R&D 분야 모니터링, ‘15)

성과지표	2014	2015	2016	2017
30대 여성고용률	56.3%	56.9%	57.2%	57.5%
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	4.4%	5.5%	6.7%	8.0%
가족친화인증기업(관)수	956개	1,363개	1,800개	2,000개
새일센터 취업자수	13만명	14만명	15만명	16만명
시간선택제 일자리 수	5,622명	11,620명	16,876명	20,000명

## ① 일·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

### □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

- 임신·출산 등 건강보험 정보를 고용보험DB와 연계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·계도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
  - 출산휴가 부여, 임신·출산기 해고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법사업장 수시 적발 및 점검 실시
  -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가이드라인 마련
- ※ 임신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호조치, 출산휴가 신청 및 복귀시 사업주의 조치사항,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기준·절차 포함
- 사업장의 대체인력 수요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수요 등을 적시 매칭하도록 새일센터-고용센터간 협업을 강화하여 대체인력난 해소
  - ※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확대 : ('15년) 1,000명 → ('16년) 2,000명
-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으나 일·가정 양립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민·관 합동 모니터링단 구성·현장점검 추진

## □ 일·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

-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고, 사후 컨설팅 및 경영성과 모니터링으로 내실화 추진
  - ※ 가족친화인증기업 : ('15년) 1,363개 → ('16년) 1,800개 → ('17년) 2,000개
- 경제단체·관계부처와 협업하여 '기업·조직문화 개선 방안'을 마련하고,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 TF를 통해 확산
  -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·지자체 합동 실천 캠페인, 기업문화 개선 매뉴얼 제작·배포
  - 기업이 스스로 일·가정 양립 정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'자체 점검지표' 보급
- 일·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근무, 재택·원격근무 지원제도 신설('16년 1,800여명)
- 관계부처·지자체·경제단체·여성단체 등을 총망라한 협의체를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홍보 추진
- 여성고용률·관리자 비율 위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평가지표를 일·가정 양립 제도 이행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

## □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

-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'자동육아휴직제'를 공공기관에서 선도하도록 유도
-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정보, 커리어 코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'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' 보급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(1→2년) 및 분할 사용횟수 확대(2→3회)
  -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'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'를 300인 미만에도 확대 적용('16.3월)
- 중소기업의 비정규직, 남성 육아휴직시 사업주 지원금 인상('17~)

## □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장 착근 유도

- 결혼·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“선진국형 일하는 문화\*” 확산 추진
  - ※ 임신·출산 → 육아휴직 → 전환형 시간선택제 → 전일제 복귀
- 모든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(도입률 : '16년 60% → '17년 80% → '18년 100%)
  - ※ '18년까지 부처·기관별로 정원의 1% 이상 활용
- 우수사례 경진대회, 설명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
- 일·가정 양립과 시간선택제 정책의 연계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, 시간선택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('16년 목표 16,876명)
  -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시 정규직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
    - ※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결원을 정규직으로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·정원 규정 탄력운영 방안 검토

## □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

- ‘아빠의 달’ 지원기간을 확대(1→3개월)하고,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\*(‘17년 시행)하여 일·가정 양립을 유도
  - ※ 중소기업 사업장별로 남녀 각각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 지원금 2배 인상(월 20만원 → 월 40만원)
- 워킹맘·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(6개소 → 82개소)하여 남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
  - ‘예비아빠’ 수첩 제공, ‘일·가정 톡톡’ 앱을 통한 남성참여 프로그램 안내, 생애주기별 아빠 교육과정 운영, 아빠 자조모임 활성화 등 아빠들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

- 정부업무평가시 남성육아휴직 이용률 반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남성 육아참여를 선도
  -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경제계와 협력 강화
-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한 양육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시설, 공공디자인 등을 개선(행자부 등 협업)
  - ※ 유아휴게실을 아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에 아빠와 아이 그림 삽입, 남자 화장실에 유아보조변기 설치(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예정) 등
- 학교 활동 운영시간대 다양화 등 맞벌이 부모 및 아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활동 개선

## ②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

### □ 수요자 맞춤형 보육·양육서비스 제공

-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(7월 시행)
  - 現 종일반 중심의 운영 체계를 보육필요에 따라 길게 필요하면 종일반(12시간), 짧게 필요하면 맞춤형반(7시간)을 이용하도록 개편
-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 등 확대 지원('15년 230개→ '16년 380개)
-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, 전국 아이돌보미 대상 매년 '아동학대 예방교육' 실시를 의무화
  - ※ 미취학아동 실지원가구 ('15년) 36,800가구 → ('16년) 41,200가구
-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양육 부·모와 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

## □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

- 국공립·공공형·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 지속 확충(국공립·공공형 각 150개소, 직장 80개소)
  - 대기업-중소기업 상생형, 자치단체 협업형 등 다양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여 중소기업의 보육수요 충족
  -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제도\* 신규 시행으로 설치의무 이행 강화
    - \* 설치의무 미이행시 1년에 2회, 회당 최대 1억원까지 강제금 부과(영유아보육법)
  - 대학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, 육아휴학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대학(원)생의 학업·육아 병행여건 조성
- CCTV 의무설치('15년 의무화 도입), 부모 열람권 보장 등 법규정 이행 실태 집중 점검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기반 정착
- 보조교사·대체교사 확대지원,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,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\*을 통해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※ △보조교사 12,344명, 대체교사 1,036명 △0~2세 교사 근무환경비 월20만원 △20인 미만 시설 교사겸직원당수당 7.5만원, △아이돌보미 수당인상(6,000→6,500원) 등

## □ 학교·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

- 초등돌봄 교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
  - 1~2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하고, 3~6학년은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운영으로 전학년 맞춤형 서비스 완성
  - 학교에서 저녁돌봄 운영 시 인근지구대의 순찰강화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수요가 적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

- 주민자치센터, 사회복지회관 등 지자체 공공시설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「공동육아나눔터」 설치 확대\*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
  - ※ ('15년) 109개소 → ('16년) 120개소
-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대상 확대(중2→중3) 및 지원기관 확대(102→128개)

### 3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

#### 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·창업 서비스 강화

- IT, 콘텐츠 분야 등 고숙련, 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, 틈새직종 개발과 구인기업 발굴활동 강화로 여성일자리 창출
  - ※ 30대 여성을 중점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, 고품질의 여성교육 훈련사업 공모 시범운영(20여개 과정)
-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「여성새로일하기센터」(예비창업자 발굴)와 「창조경제혁신센터」를 연계, 창업훈련 및 컨설팅·인큐베이팅 등 지원
  - ※ 창업희망 경단여성 등에 R&D 창업자금 지원(100억원), 여성창업보육실(14개소), 여성창업경진대회 등 연계(중기청 협업)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(147→150개소) 및 고용복지+센터(40→70개소)에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
  - ※ 기관 간 취업연계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,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새일센터-고용센터 간 협업 강화
- 경력단절여성 대상 1:1 진로상담,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(dream.go.kr)를 8개 시·도에서 전국으로 확대



## □ 여성이 조직내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- 지방공기업, 문화·체육 등 여성 취약 부문에 「여성인재아카데미」 교육을 확대하고, 여성인재DB와 연계하여 경력·직종별 맞춤형 교육 확대
  - 정부위원회, 공공기관 임원 뿐 아니라 공직 및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,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등으로 여성인재DB 활용처 확대
- ※ DB등재 : ('13년) 47,068명 → ('15년) 78,960명 → ('17년 목표) 100,000명
- 공공기관이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,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도입시 여성인재 확대 추진(기재부 협업)
  - 지방 공기업 임직원 성별통계 분석 및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범 도입 추진(행자부 협업)
-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 시 여성관리자 운영 관련 평가 강화

## □ 여성의 일자리 진입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대 강화

- 「대학창조일자리센터」와 연계하여 '청년 여성 특화프로그램'을 운영하고, 관련 학회·기업 등과 「청년여성 취업진로포럼」(가칭) 개최

- 여성이 경력단절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 강화(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」 전부 개정)
  - ※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근거 신설,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내실화·체계화(시스템 운영 근거 등)
  
- 고용유지, 육아휴직 사용 등 일·가정 양립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‘노·사·정 협의체’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
  - ※ 출판, 병원, 유통, 교육서비스, 건설 등 업종별 노사단체,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으로 구성

중 점 과 제		관계부처	추진일정
<b>1. 일·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	고용부	'16.1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워킹맘·워킹대디 지원사업 확대	여가부	'16.3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프로그램 표준모델 보급	여가부	'16.3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일·가정 양립 민관 협의체 운영	여가부 고용부 복지부	'16.3월~	
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	고용부	'16.3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일·가정 양립 취약분야 모니터링 시행	여가부	'16.4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 근로감독 시행	고용부	'16.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여식	여가부	'16.12월	
<b>2.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맞춤형 보육 체계 지원 개시	복지부	'16.7월	
<b>3.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	여가부	'16.1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확대 실시	여가부	'16.2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새일센터·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훈련	여가부 미래부	'16.3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새일센터 확대 설치	여가부	'16.7월	
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 개발·보급	여가부	'16.12월	